No. 4 ETF·적립식 읽는 시간 5분

# S&P500 ETF 적립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?

매달 사 모은 S&P500 ETF를 팔 때 필요한 기준을 가상의 숫자로 정리합니다. 평균 매입 단가, 목표 시점, 나눠 팔기, 세금을 차례로 확인합니다.

**한 줄 결론**

팔 시점은 시장 전망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함

**확인할 숫자**

평균 매입 단가, 필요한 금액과 시점, 매도 후 세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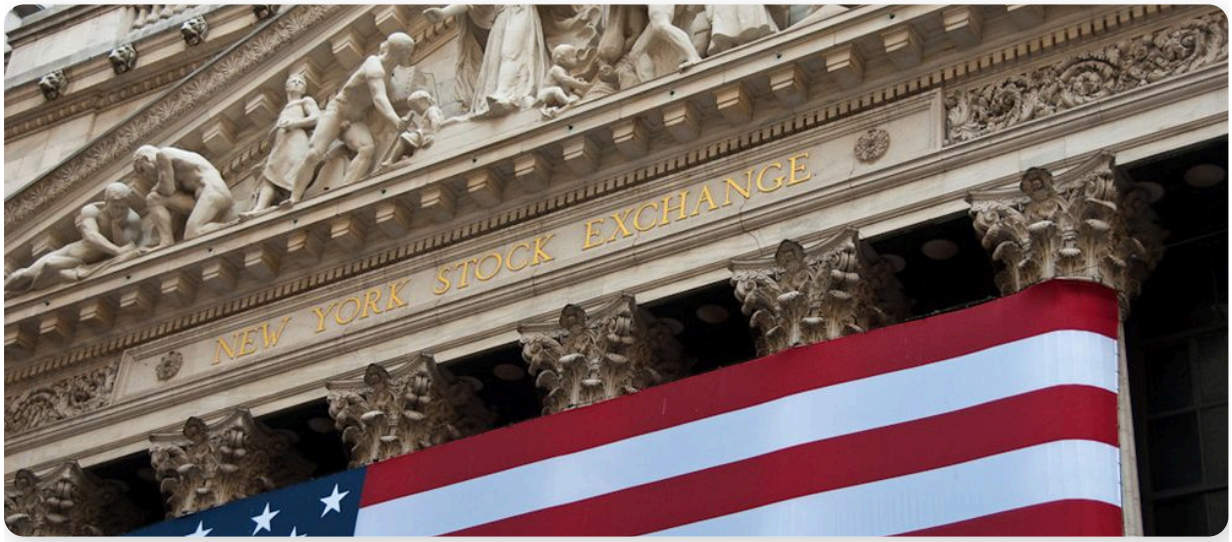



사진: 성조기가 걸린 뉴욕증권거래소 정면, David Blaikie, Flickr.

목차

1. 적립식은 얼마에 샀는지 어떻게 알까?
2. 목표 수익률보다 돈이 필요한 시점이 먼저일까?
3. 한 번에 팔까, 나눠 팔까?
4. 목표 시점이 다가오면 하락이 더 아플까?
5. 팔기 전에 세금과 비용도 따져야 할까?
6. 팔기 전에 던질 세 가지 질문

> 이 글의 가격과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. 특정 상품의 매수·매도 권유가 아닙니다.

매달 S&P500 ETF를 꾸준히 사 모으다가 문득 "이걸 언제 팔지?" 하고 멈춘 분이 많을 겁니다. 살 때는 날짜를 정해 자동으로 샀는데, 팔 때는 기준이 없으니 막막하죠.

그렇다면 적립식 투자는 언제 팔아야 할까요? 가상의 숫자로 기준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

01

## 적립식은 얼마에 샀는지 어떻게 알까?

S&P500은 미국 대형주 500개로 이뤄진 주가지수입니다. 이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펀드가 S&P500 ETF입니다. 매달 같은 금액으로 사면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이, 높을 때 더 적게 사게 됩니다.

가상의 ETF를 매달 10만 원씩 4개월 동안 샀다고 하겠습니다. 주가가 1개월 차 10,000원, 2개월 차 5,000원, 3개월 차 12,500원, 4개월 차 10,000원이었다면 산 수량은 10주, 20주, 8주, 10주로 모두 48주입니다.



사진: 높이가 조금씩 다른 동전 더미, Au Kirk, Flick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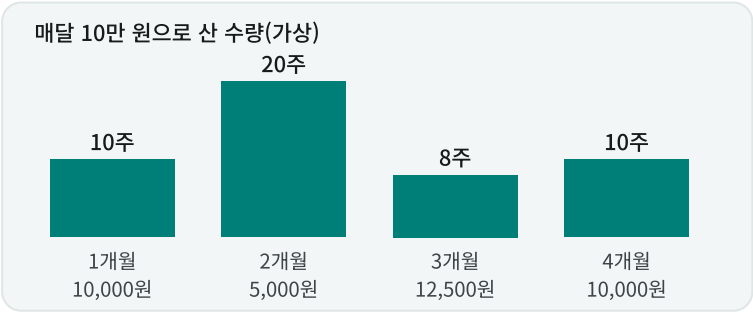



그림 1. 가상 예시. 막대 높이는 산 수량에 비례하고, 막대 아래 숫자는 그달의 주가임.

총 투자금은 40만 원이고 평균 매입 단가는 40만 원 ÷ 48주, 약 8,333원입니다. 주가를 단순 평균한 9,375원보다 낮은 까닭은 쌀 때 더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. 지금 주가가 10,000원이라면 평가액은 48만 원, 수익은 8만 원(20%)입니다.

평균 단가가 기준선입니다.

이처럼 적립식에서는 마지막 가격이 아니라 평균 매입 단가가 내 손익을 가르는 선입니다.

02

## 목표 수익률보다 돈이 필요한 시점이 먼저일까?

많은 분이 "20%가 되면 팔겠다"처럼 수익률로 기준을 정합니다. 하지만 이 방식에는 약점이 있습니다. 목표에 닿기 전에 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, 닿은 뒤에도 쓸 곳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렇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? 쓸 시점과 필요한 금액입니다. 3년 뒤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해서 1,200만 원이 필요하고, 지금 평가액이 9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. 부족분은 300만 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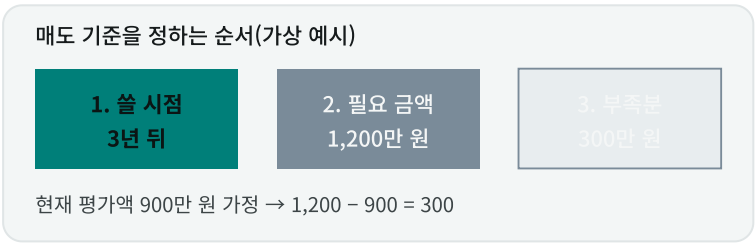



그림 2. 수익률이 아니라 시점과 금액에서 출발하는 순서. 숫자는 설명용 가상 예시임.

이 부족분이 납입 금액을 늘릴지, 목표 시점을 미룰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. 이처럼 팔 기준은 시장 전망이 아니라 내 돈의 쓰임에서 나옵니다.

## 03

# 한 번에 팔까, 나눠 팔까?

다음은 파는 방식입니다. 적립식은 살 때 시점을 나눠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. 팔 때도 같은 논리를 쓸 수 있습니다.

앞의 48주를 16주씩 세 번에 나눠 판다고 하겠습니다. 매도 가격이 차례로 10,000원, 8,000원, 11,000원이었다면 받는 돈은 16만 원, 12만 8천 원, 17만 6천 원이고 합계는 46만 4천 원입니다. 같은 기간 가장 쌀 때(8,000원)에 한 번에 팔았다면 38만 4천 원, 가장 비쌀 때(11,000원)에 한 번에 팔았다면 52만 8천 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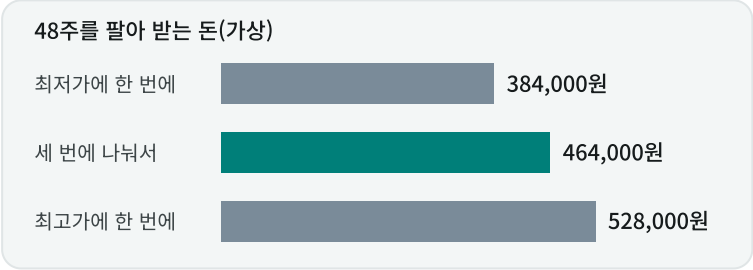



그림 3.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함. 가상 예시이며 실제 가격 흐름이 아님.

나눠 팔면 가장 비쌀 때도 가장 쌀 때도 놓치지 않는 중간 결과가 나옵니다. 다만 항상 유리한 방법은 아닙니다.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먼저 판 몫이 아쉬워집니다.

그래서 가격을 미리 맞힐 수 없다면 나눠 파는 쪽이 마음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
## 04

# 목표 시점이 다가오면 하락이 더 아플까?

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의 하락은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. 하지만 목표 시점 직전의 하락은 다릅니다. 평가액 900만 원이 목표 직전에 20% 떨어지면 720만 원이 되고, 부족분은 3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



사진: 가운데 좁은 목으로 모래가 떨어지는 모래시계 확대 사진, graymalkn, Flickr.

그래서 목표가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변동이 큰 자산에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조금씩 옮기는 것입니다. 아래 비율은 방향을 보여 주는 개념도일 뿐 권유가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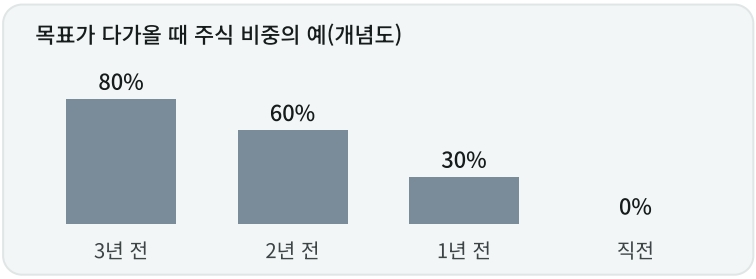



그림 4. 막대 높이는 비율에 비례함. 사람마다 맞는 비율이 다르며 실제 권장 비율이 아님.

이처럼 팔기 전에 이미 시작되는 준비가 있습니다.

05

## 팔기 전에 세금과 비용도 따져야 할까?

같은 S&P500 ETF라도 어느 나라 거래소에 상장됐는지, 어떤 계좌(일반·ISA·연금)에 담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. 해외에 상장된 상품이라면 환전 비용도 듭니다. 세율과 공제 한도는 바뀔 수 있어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[확인 필요]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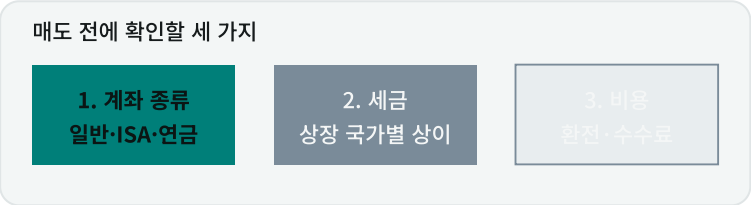



그림 5. 확인 항목을 정리한 개념도. 세율은 적지 않았으며 매도 전 안내문에서 확인해야 함.

손에 쥐는 돈은 세금과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. 1,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낸 뒤에 1,200만 원이 남도록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. 이처럼 목표 금액은 세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.

06

## 팔기 전에 던질 세 가지 질문

지금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팔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1. **"언제, 얼마가 필요한가?"**
   → 쓸 시점과 금액이 정해지면 팔 시점도 정해집니다.

2. **"한 번에 팔 것인가, 나눠 팔 것인가?"**
   → 가격을 맞힐 수 없다면 나눠 팔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3. **"세금과 비용을 뺀 뒤 얼마가 남는가?"**
   → 필요한 금액은 세후로 계산합니다.

이처럼 S&P500 ETF 적립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는 고점을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, 내 돈이 필요한 시점과 금액에서 출발합니다. 오늘은 쓸 시점과 금액을 한 줄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

*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[담당자 검토]*

### 참고 자료


- S&P500 지수의 구성(미국 대형주 500개): S&P Dow Jones Indices 공식 소개 [확인 필요: 출처 링크와 기준일]
- ETF 세금·계좌별 과세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이용 중인 증권사의 매도 전 안내 [확인 필요: 현재 세율과 공제 한도]
- 글에 쓴 가격, 수량, 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상품의 가격이 아님. 그림 4의 비율은 개념도임
- 사진 3장의 출처는 각 사진 아래에 적음(맨 위: 뉴욕증권거래소 David Blaikie, 동전 Au Kirk, 모래시계 graymalkn, 모두 Flickr)


분류·태그 ETF·적립식 #ETF #S&P500 #매도 전략 #매매 전략 #비용 #세금 #적립식

온라인 원문: https://www.stock-diary.kr/p/2026-11-15-sp500-dca-sell.html


**AI 활용 안내** 이 리포트는 AI(생성형 인공지능)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,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.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「참고 자료」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**저작권 안내**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, 허락 없이 복제·배포·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, 출처는 본문 캡션과 「참고 자료」에 밝혔습니다. [담당자 검토]